

일부 특수학교 교직원의 구강관리실태

박정순 · 이선옥¹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 ¹동아인재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the state of oral care among some special school personnels

Park-Chung Soon · Lee-Seon Ok¹

Dep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¹*Dept. of Dental Hygiene, Dong-a in-jae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oral health care among special school personnels in an attemp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oral health car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would be under the first hand influence of school personnels.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personnels who were selected by randomselection in five different special schools located in the city of Jeonju, North Jeolla Province.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in person from July 5 to 14 af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plained.

Results : 1. Concerning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was high in the personnel whose career is 5 years more, and the younger personnels had a better oral health knowledge, and the men were more knowledgeable than the women. 2. As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the rate of the respondents who ever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stood at 35.3 percent. In relation to the frequency of oral health education, the biggest group that accounted for 58.2 percent received that education once. As for the route of education, the largest group that represented 52.7 percent received that education at dental hospitals or clinics. In relation to satisfaction with oral health education, the greatest group that accounted for 38.5 percent were dissatisfied with that education. 3. As for an intention of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 in the future, the biggest group that accounted for 60.9 percent intended to receive that education if they would have free time, and the largest group that represented 47.7 percent believed that oral health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by dental hygienists. 4. Concerning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age in both brushing and supplies of oral health care was high in forties-1.89 point and 3.33 point, and that in regular visit to a dental clinic was the highest in twenties for 2.58 point, and that in dietary control was the highest in twenties for 2.59 point. 5. Their oral health knowledg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their toothbrushing, regular dental clinic visit and dietary control that were the subfactors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6. As for the impact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oral health knowledge, toothbrushing exerte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at($\beta=0.306$, $p<0.001$).

Conclusions : Appropriate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let dental hygienists who are expert in oral

health care provide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for students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is urgently required to offer systematic oral health education for not only students with disabilities but their teachers and guardians.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5):659-670)

Keywords : oral care, oral health education, special school personnels

색인 : 구강관리, 구강보건교육, 특수학교 교직원

▶ 본 연구는 2011년 원광보건대학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서론

장애인이란 선천적, 후천성을 막론하고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장애가 있어 평소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혼자서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정의하였다¹⁾. 오늘날 장애인 문제는 인구의 노령화, 다양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후천적 장애 유발요인의 급증으로 소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교육, 지원, 책임, 정책 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²⁾.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진료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 의료분야에서와 달리 치과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³⁾. 이에 김과 권⁴⁾은 보호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도가 장애인의 치과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 등⁵⁾은 한 개 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실에 내원한 환자의 구강진료실태를, 최⁶⁾는 우리나라 치과진료기관의 장애인 진료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보고하면서 장애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장애 유형별 구강보건교육방법, 구강병 예방진료 및 주기적 관리제도가 포함된 장애인 구강보건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구강위생 상태의 차이가 많다. 정신지체인은 일반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구강질환의 발생 빈도와 심도가 높다⁷⁾. 김과 권⁴⁾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치과의료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자

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나 기관에서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 등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정신지체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상태를 보고하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구강위생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정 등⁹⁾은 심신장애자의 구강보건실태와 구강보건의료수요를 조사하여 보고하면서 사회복지사업계획에 가장 우선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들 스스로의 치과적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치과의사 개개인의 노력과 아울러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국가적 차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스스로의 구강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으로써는 보호자에게 구강관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호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스스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치과치료와 구강위생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구강보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및 보호자의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선행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애인의 구강위생관리, 구강병 예방 및 조기치료, 지속적인 구강관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⁰⁾. 김¹¹⁾은 보호자의 구강보건 인식과 행태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존재하므로, 장애인의 구강보건 문제는 치료와 병행하여 보호자 및 교사들에 대한 인식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 보호자의 구강보건인식 태도에 대한 조사가 연구되어 보고^{3,4~12)}되었고, 황¹³⁾은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교

사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실태와 인식도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보고하면서 구강전문 의료인을 통한 교육으로 학교구강보건교육의 정립과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장애인 학생들의 구강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해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학교 5개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 7월 5일 부터 7월 14일 까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2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25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지 작성은 황¹³⁾, 장과 성¹⁴⁾, 신 등¹⁵⁾, 김 등¹⁶⁾의 연구도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구강보건지식수준은 치아우식병 예방법에 관한 내용 3문항, 치주병 예방법에 관한 내용 2문항으로 총 5문항을 측정하였고, 구강건강증진행위는 칫솔질 내용 5문항, 구강관리용품 내용 4문항, 정기방문 내용 3문항, 식이조절 내용 3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수준

구분		N(명)	평균±표준편차	t or F	p-값†
연령	20대	40	9.50±2.25	0.086	0.968
	30대	70	9.40±2.61		
	40대	109	9.30±2.59		
	50대 이상	39	9.25±2.51		
성별	남	82	9.53±2.74	0.761	0.448
	여	176	9.26±2.41		
직급	교원	142	9.43±2.44	0.586	0.558
	직원	116	9.25±2.62		
학력	고등학교 졸업	31	9.35±3.19	0.570	0.635
	전문대학 졸업	35	9.60±2.37		
	대학교 졸업	127	9.15±2.37		
	대학원 졸업	65	9.60±2.54		
경력	1년 미만	37	9.40±2.49	0.317	0.866
	1년 이상	37	9.35±2.45		
	3년 이상	36	8.94±2.51		
	5년 이상	53	9.54±2.53		
	10년 이상	95	9.37±2.58		
소 계		258	9.35±2.52		

• p-값 † 은 t-검정 또는 일변량분산분석에 의해 계산되었음.

표 2. 구강건강지식수준

항 목	N	평균	표준편차
식사 후 칫솔질은 치주병 예방효과 있음	258	3.30	.538
불소세치제 사용은 치아우식병 예방효과 있음	258	3.07	.637
치면열구전색(홈메우기)은 치아우식병 예방효과 있음	258	3.05	.649
주기적인 스켈링은 치주병 예방효과 있음	258	3.16	.659
설탕이 적은 음식섭취는 치아우식병 예방효과 있음	258	3.05	.684

측정하였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실태는 6문항, 향후 구강보건교육 경험태도는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5문항의 Cronbach의 신뢰도 계수는 0.853이었고, 구강건강증진행위에 관한 15문항의 Cronbach의 신뢰도 계수는 0.81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응답수준에 따라 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과 행위수준이 높은 것으로 산정하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강보건교육 경험태도와 향후 구강보건교육 경험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건강증진행위는 t-검정, 일변량분산분석법(one-way ANOVA)을 시행한 후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은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였으며,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이 구강보건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표 3. 구강건강증진행위

항 목	N	평균	표준편차	
칫솔질	하루 칫솔질 3회 이상	258	3.40	.666
	3분이상 칫솔질	258	2.96	.747
	불소치약사용	258	2.87	.790
	회전법 칫솔질	258	3.17	.671
	혀 닦기 시행	258	3.24	.769
구강 관리용품	치실사용	258	1.86	.935
	치간칫솔사용	258	1.84	.972
	구강양치액(가그린)사용	258	1.72	.858
	혀 세척기사용	258	1.54	.827
기방문	6개월 1번 정기구강검진시행	258	2.27	.889
	구강병발생시 즉시 치과방문	258	2.70	.831
	정기적인 스켈링	258	2.43	.902
식이조절	단음식 섭취 자제	258	2.59	.837
	탄산음료 섭취 자제	258	2.73	.864
	질기고 딱딱한 음식 섭취 자제	258	2.58	.790

서는 선형회귀분석 중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수준은 <표 1>과 같다. 연령별에서 20대가 9.50점, 30대 9.40점, 40대 9.30점, 50대 이상이 9.25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았고, 성별에서는 남자가 9.53점으로 여자 9.25점보다 높았다. 또한 직급별에서 교원이 9.43점, 직원이 9.25점이었고, 학력에서는 전문대학과 대학원 졸업자가 9.60점으로 가장 높았다. 경력별 구강보건지식수준은 5년 이상이 9.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9.37점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지식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식사 후 칫솔질이 치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3.30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면열구전색(홈메우기)과 설당이 적은 음식섭취가 치아우식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3.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칫솔질 항목 중에서는 하루에 칫솔질을 3회 이상한다가 평균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리용품 사용 항목 중에는 치실사용이 평균 1.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기방문에 대한 항목 중에는 구강병 발생시 즉시 치과를 방문한다가 평균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이조절 항목에 대해서는 탄산음료 섭취를 자제한다가 평균 2.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구강보건교육 경험실태

구 분		N(명)	%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	있다	91	35.3
	없다	167	64.7
소 계		258	100.0
구강보건교육 횟수	1회	53	58.2
	2회	22	24.2
	3회 이상	16	17.6
구강보건교육 경로	학교	36	39.6
	치과(병)의원	48	52.7
	방송매체	5	5.5
	기타	2	2.2
구강보건교육 만족도	만족	1	1.1
	보통	33	36.3
	불만족	35	38.5
	매우 불만족	22	24.2
치아우식병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인지	매우 필요	47	51.6
	필요	42	46.2
	불필요	2	2.2
치주병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인지	매우 필요	45	49.5
	필요	45	49.5
	불필요	1	1.1

표 5. 향후 구강보건교육 경험태도

구분		N(명)	%
향후 구강보건교육 참여도	꼭 받을 것이다	72	27.9
	시간이 되면 받을 것이다	157	60.9
	교육내용을 보고 받을 것이다	18	7.0
	잘 모르겠다	10	3.9
	받지 않을 것이다	1	4
구강보건교육 실시자	담임교사	10	3.9
	보건교사	47	18.2
	보건의료인	73	28.3
	치과위생사	123	47.7
	기타	5	1.9
학습하고 싶은 구강보건교육내용†(다중응답)	칫솔질 방법	71	15.3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101	21.8
	치아의 기능	32	6.9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의 원인	95	20.5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의 예방법	158	34.1
	기타	6	1.3

3.2. 구강보건교육 경험실태

구강보건교육 경험실태 조사는 <표 4>와 같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5.3%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직원 중 구강보건교육 횟수는 1회가 58.2%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경로는 치과(병)의원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내용 중 치아우식병 예방을 위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51.6%가 응답하였으며, 치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와 필요하다고 각각 동일하게 49.5%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62.7%로 높게 나타났다.

3.3. 향후 구강보건교육 경험태도

향후 구강보건교육 경험태도는 <표 5>와 같다. 향후 구강보건교육의 참석 의향에는 '시간이 되면 받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았으며,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위생사가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7.7%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인 28.3%, 보건교사

18.2%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의 예방법이 34.1%로 가장 높았고 구강관리용품 사용법이 21.8% 순으로 나타났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는 <표 6>과 같다. 연령별에서 칫솔질과 구강관리용품은 40대가 1.89점과 3.33점, 정기방문이 20대가 2.58점, 식이조절이 20대가 2.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식이조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성별에서는 칫솔질이 남자가 1.93점, 구강관리용품이 3.31점이었고, 정기방문은 남자가 2.69점, 여자가 2.44점이었으며 식이조절은 남자가 2.49점, 여자가 2.29점으로 정기방문과 식이조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직급별에서 구강건강증진행위 점수는 교원이 칫솔질, 구강관리용품, 정기방문에서 약간 높았고, 식이조절은 직원이 높았다. 학력별에서는 칫솔질과 구강관리용품은 대학원 졸업자가 1.93점과 3.31점이었고,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

항 목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			
		칫솔질	구강관리용품	정기방문	식이조절
연령	20대	1.85±0.42	3.27±0.61	2.58±0.72	2.59±0.66 ^a
	30대	1.84±0.49	3.15±0.68	2.52±0.75	2.47±0.79 ^{ab}
	40대	1.89±0.50	3.33±0.67	2.55±0.77	2.26±0.65 ^{ab}
	50대이상	1.83±0.59	3.20±0.68	2.39±0.71	2.17±0.64 ^b
	F	0.226	1.150	0.534	3.755
	p값†	0.878	0.329	0.660	0.011*
성별	남	1.93±0.54	3.31±0.64	2.69±0.71	2.49±0.68
	여	1.83±0.48	3.22±0.68	2.44±0.75	2.29±0.71
	t	1.594	0.970	2.546	2.072
	p값†	0.112	0.333	0.011*	0.039*
직급	교원	1.87±0.48	3.26±0.57	2.53±0.71	2.33±0.68
	직원	1.85±0.52	3.24±0.77	2.51±0.78	2.38±0.73
	t	0.357	0.283	0.191	-0.531
	p값†	0.721	0.777	0.848	0.596
학력	고등학교 졸업	1.71±0.58	3.25±0.73	2.43±0.81	2.27±0.62
	전문대학 졸업	1.82±0.48	3.14±0.79	2.58±0.84	2.52±0.71
	대학교 졸업	1.87±0.47	3.25±0.67	2.50±0.70	2.35±0.71
	대학원 졸업	1.93±0.52	3.31±0.55	2.58±0.75	2.32±0.72
	F	1.384	0.481	0.423	0.824
	p값†	0.248	0.696	0.737	0.481
경력	1년 미만	1.77±0.40	3.33±0.56	2.66±0.77	2.55±0.61
	1년 이상	1.71±0.55	3.10±0.80	2.33±0.78	2.27±0.77
	3년 이상	1.88±0.49	3.01±0.82	2.49±0.65	2.45±0.72
	5년 이상	1.89±0.51	3.26±0.70	2.44±0.79	2.20±0.63
	10년 이상	1.93±0.51	3.26±0.53	2.60±0.72	2.36±0.73
	F	1.570	2.525	1.394	1.698
	p값†	0.183	0.41	0.236	0.151

• p-값 † 은 t-검정 또는 일변량분산분석에 의해 계산되었음.
 • ^{a, b}: Scheffe의 사후검정 - 같은 문자가 있는 것은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p<0.05)
 • *: p<0.05

정기방문과 식이조절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2.58점과 2.52점이었다. 또한 경력별에서는 칫솔질이 10년 이상인 군에서 1.93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1년 미만인 군에서는 구강관리용품이 3.33점, 정기방문이 2.66점, 식이조절이 2.5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

	1	2	3	4	5
1. 구강보건지식수준	1				
2. 칫솔질	0.424**	1			
3. 구강관리용품	0.119	0.208**	1		
4. 정기방문	0.355**	0.422**	0.330**	1	
5. 식이조절	0.320**	0.308***	0.150*	0.398**	1

*: $p<0.05$, **: $p<0.01$

표 8.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이 구강보건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3.757	0.646		5.819	0.000
칫솔질	0.307	0.061	0.306	5.001	0.000***
식이조절	0.192	0.072	0.161	2.668	0.008**
정기방문	0.181	0.071	0.161	2.542	0.012**
				F=26.579	R ² =0.230

• 종속변수 : 구강보건지식

*: $p<0.05$, **: $p<0.01$, ***: $p<0.001$

3.5.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은 <표 7>과 같다. 요인인 칫솔질, 구강관리용품, 정기방문, 식이조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강보건지식수준은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인 칫솔질, 정기방문, 식이조절과 유의하게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3.6.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이 구강보건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이 구강보건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표 8>과 같다. 구강건강증진행위요인을 독립변수로 구강보건지식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 중 칫솔질($\beta=0.306$, $p<0.0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식이조절($\beta=0.161$, $p<0.01$)과 정기방문($\beta=0.161$, $p<0.05$) 순이었다. 구강보건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

증진행위 요인들의 적합모형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F통계량은 26.579였고,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이 구강보건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R²=0.230이었다.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장애인 학생들의 구강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수준은 20대가 9.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황¹³⁾의 보고에서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서도 남자가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황¹³⁾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직원의 경우 9.54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은 김 등¹⁶⁾보고와 일치하였다. 이는 인터넷이나 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강보건지식의 습득기회가 다양해지면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학의 방향 전환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나 보수교육을 통해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영향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 등¹⁷⁾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등¹⁸⁾은 구강건강 관심이 구강보건지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구강건강영향지수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 보호자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실태에 관한 연구결과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5.3%로 나타나 장과 성¹⁴⁾의 37.1%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이 등¹⁸⁾의 2.8%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¹⁹⁾는 최근 건강증진 목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건강 문제에 관한 두드러진 변화는 건강관리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노²⁰⁾는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그들의 생활태도 및 습관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건강행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강보건교육 횟수에 대한 조사결과 1회가 5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아닌 단기성의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장과 성¹⁴⁾은 구강보건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전체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인식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구강보건교육의 경로를 살펴 보면 치과(병)의원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과 성¹⁴⁾의 13.1%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료실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의 환자교육은 환자가 처음으로 구강진료기관을 내원하여 진료실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어 그 후 환자의 진료환경과 구강진료내용에 따라 각 단계별 구강보건교육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구강보건

교육자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치아우식병 예방과 치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응답자가 각각 51.6%와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구강병 예방의 기본이 되는 칫솔질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한편 장과 성¹⁴⁾은 구강보건교육 경험자 중 교육내용이 칫솔질 방법 74.7%와 예방법이 14.1%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62.7%로 나타나 집단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기본이 되는 구강보건교육의 체제의 변화 및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구강보건교육 경험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위생사가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7.7%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인이나 보건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구강건강의 질을 향상, 유지 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치위생사에 의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장과 성¹⁴⁾은 교사들의 교육에 있어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²¹⁾는 전문 치과위생사가 학교에 상주하여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향후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될 경우 '시간이 되면 받을 것이다' 라고 60.9%가 응답하여 남과 한²²⁾의 64.40%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장과 성¹⁴⁾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7.7%가 향후 구강보건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하였으며, 비경험자 중에서도 66.1%가 향후 참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정과 윤²³⁾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흥미유발은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구강보건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하고 싶은 교육내용으로는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의 예방법 34.1%와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2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직원에서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듯이 오랫동안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신 등¹⁵⁾은 특수학교와 시설 등지에 구

구강보건을 확대 설치하여 구강보건교육, 칫솔질교습, 치아우식병 및 치주병에 대한 예방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일상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 구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연령별에서는 20대에서 정기방문과 식이조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에서는 칫솔질과 구강관리용품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관리의 기본이 되는 칫솔질의 중요성을 인지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김 등¹⁶⁾은 나이가 많을수록 당분섭취제한과 정기구강검진에 있어서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윤과 남²⁴⁾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구강관리용품을 많이 사용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치실의 사용이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치간칫솔의 사용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듯이 교직원의 연령 변화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의 변화가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올바른 구강관리용품 사용으로 건강한 치아주위조직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모든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가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¹⁾ 것과의 차이가 있어 고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은 구강건강증진 행위 요인인 칫솔질, 정기방문, 식이조절과 유의하게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보건지식수준이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사료된다. 즉 장애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직원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구강보건교육을 계획하게 되면 구강보건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정 등³⁾은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호자에 대한 동기유발은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며, 교육 후 감소된 구강위생지수는 보호자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보호자들이 개선된 구강관리 태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보호자의 구강보건교육은 단기성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조작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자와 교직원의 구강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구강보건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보호자들의 적극성 부족과 실태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었다. 또한 연구대상 집단이 전주시에 소재한 5개의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특수학교 교직원의 구강관리실태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장애종류별 구강보건관점에서 구강관리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특수학교 교직원의 구강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 학생들의 구강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해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학교 교직원 258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5년 이상의 경력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2.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5.3%이었으며, 교육횟수는 1회가 58.2%로 가장 높았다. 교육경로는 치과(병)의원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62.7%로 높게 나타났다.
3. 향후 구강보건교육 참여 의향은 “시간이 되면 받을 것이다”가 60.9%로 가장 높았고,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위생사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는 연령별에서 칫솔질과 구강관리용품은 40대가 1.89점과 3.33점으로 높았으며, 정기방문이 20대가 2.58점, 식이조절이 20대가 2.59점으로 가장 높았다.
5.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인 칫솔질, 정기방문, 식이조절과 유의하게 양(+)의 관

련성이 있었다.

6. 구강건강증진행위 요인이 구강보건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칫솔질($\beta=0.306$, $p<0.0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구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계속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종류별 구강특성에 맞게 구강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구강보건교재개발위원회. 공중구강보건학. 제 2판. 서울:고문사;2010:107.
2. 김효정.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충남: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2005.
3. 정화영, 정미애, 김윤신. 장애인 보호자의 구강보건인식태도. 韓國肢體不自由兒教育學會誌 重複.肢體不自由兒研究 2009;52(2):75-99.
4. 김영숙, 권호근.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자의 구강보건인식도가 장애인의 치과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21(4):649-674.
5. 우희선, 김영숙, 배현숙, 임근옥, 김동기. 일개 병원에 내원한 장애인의 구강진료실태에 대한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8;32(1):105-114.
6. 최길라. 우리나라 치과진료기관의 장애인 진료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00;38(12):1159-1162.
7. 대한소아치과학회. 소아.청소년 치과학. 서울:신흥인터내셔널; 1999:475-494.
8. 박일순, 이선희, 마득상. 일부 정신지체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비교.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9;33(4):625-633.
9. 정의태, 김종열, 정성철. 한국 심신장애자들의 구강보건실태 및 구강보건의료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88;12(1):47-48.
10. 강부월, 권현숙, 김설악 외 10인. 장애인구강보건관리학. 서울:고문사;2004:154.
11. 김종범. 장애인의 생활시설과 특수학교의 구강보건관리실태 조사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서울대학교 대학원;2000.
12. 구남희. 장애아동 및 보호자의 구강보건관리 행태와 아동의 치아우식상태와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대구:계명대학교 대학원;2001.
13. 황유진.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조사[석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2008.
14. 장경애, 성미경. 보육교사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보건행태 및 인지도. 치위생과학회지 2009;9(3):319-326.
15. 신두교, 정성화, 박지혜, 최연희, 송근배. 우리나라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관련요인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7;31(2):248-262.
16. 김수화, 임미희, 정재연, 황윤숙, 이선미. 일부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구강보건지식 및 실천정도 분석. 치위생과학회지 2010;10(5):379-385.
17. 이선미, 임미희, 정재연, 황윤숙, 김수화. 서울시 보육교사의 구강보건인식도 및 구강건강관리행태.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3):449-457.
18. 이선미, 김은주, 이덕혜. 일부 고등학생들의 구강관련지식과 구강건강영향지수와의 관계.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5):877-885.
19. 이채천. 고등학생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석사학위논문]. 부산: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2000.
20. 노형인.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의 건강에 대한 지식.태도 및 실천 행위간의 관련성 비교[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2.
21. 이규환. 장애아동 특수학교의 학교구강보건사업 평가연구. 韓國肢體不自由兒教育學會誌 重複.肢體不自由兒研究 2009;52(4):451-473.
22. 남상분, 한양금. 치과이용 장애인들의 구강보건행동과 태도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1;1(1):43-49.

670 일부 특수학교 교직원의 구강관리실태

23. 정은주, 윤혜정.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의 인지-지각 요인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5):777-788.
24. 윤성욱, 남인숙. 구미지역 성인들의 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리실태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 10(2):269-280.